

트럼프 관세 충격에 금융시장 패닉...증시 폭락·환율 급등

코스피·코스닥 나란히 5%대 급락...지난해 8월 이후 첫 사이드카 발동
상위 200개 종목 중 한전만 2% 상승...원·달러 환율 5년만에 최대 상승

코스피가 미국의 관세 부과와 글로벌 증시 급락 영향 등으로 5% 넘게 폭락하며 2320대로 주저앉았고, 원화 가치도 급락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증가는 전 거래일 대비 137.22포인트(5.57%) 내린 2328.20으로 집계됐다.
지수는 106.17포인트(4.31%) 내린 2359.25로 장을 시작한 뒤 4~5%대 급락세를 이어갔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6.09포인트(5.25%) 내린 651.30으로 마감했다.

이날 지수가 급락하면서 오전 9시 12분부터 17분까지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지수의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이 1분 이상 지속될 때 5분간 프로그램매도호가의 효력을 정지하는 조치다.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글로벌 증시가 급락한 지난해 8월 5일 '블랙먼데이' 이후 처음이다.
한국전력은 폭락장에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00개 종목 중 유일하게 강세를 보

였다. 한국전력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2.05% 오른 2만24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73% 하락한 2만1400원에 거래를 시작했으나 이내 상승 전환해 한때 2.73% 오른 2만26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가 5.57% 급락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 전력 주가는 상당히 선방했다는 평가다.
한국전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고강도 관세 조치를 발표한 지난 3일(0.7%)과 그 충격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인 4일(2.33%)에도 주가가 올랐다. 이는 한국전력이 미국발 관세 전쟁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이 부각된 영향으로 보인다.
관세전쟁 우려 속에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원화 가치도 급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증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33.7원 뚫 1467.8원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초반인 2020년 3월 19일(40.0원) 이후 약 5년 만에 최대폭이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2.9원 높은 1462.0원에 출발해 한 때 1471.6원까지 올랐다. 이후 더 치고 오르지 않고 상승폭을 축소해 오후 2시 30분께 1461원까지 내렸다. 환율은 이후 다시 반등했고, 1460원대 후반에서 주간 장을 마무리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0.64% 오른 102.546을 기록했다.
이날 환율 급락은 미국 상호관세와 이를 맞받아

친 중국의 보복관세 발표 여파로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진 탓으로 풀이된다.
달러화와 함께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엔화의 가치는 급등했다. 원/엔 환율은 1000원을 넘어서며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26.39원 오른 100엔당 1008.21원을 기록했다.
2023년 4월 27일(1000.26원) 이후 약 2년 만에 1000원을 넘어섰으며, 2022년 3월 22일(1011.75원)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같은 시각 엔/달러 환율은 0.31% 내린 145.576엔을 나타냈다. /장윤영 기자 zzang@

지난달 광주·전남 주식 투자 위축...거래 대금 전월비 8557억 감소

지역 소재 상장법인 시가총액 줄어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주식 투자자들의 거래대금이 전월 대비 80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발언과 탄핵 선고 기일 연기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투자자들의 투자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지역 소재 상장법인의 시가총액도 900억원 가까이 줄어 들었다.
7일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가 발표한 '2025년 3월 광주·전남 상장법인 증시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대금은 2조 9860억원으로, 전월(3조 8417억원) 대비

8557억원(22.3%) 감소했다. 광주는 6420억원(23.6%), 전남은 2137억원(19.1%) 줄었다.
지역 소재 상장법인의 시가총액 역시 감소했다. 광주·전남지역 소재 상장법인 38개사의 시가총액은 지난달 말 기준 19조 8181억원으로 전월(19조 9074억원) 대비 0.4%(893억원) 줄었으며, 이 중 금호타이어의 시가총액이 474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장법인 시가총액에서 광주·전남 상장법인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0.8%로 전월과 동일했다.
광주·전남지역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법인 15개사 시가총액은 307억원(0.2%) 늘어 18조 3012억원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23개사 시가총

액은 1200억원(7.3%) 감소한 1조 517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 상장법인은 전월과 마찬가지로 한국전력공사(한전)였다. 코스피에서 한전 시가총액은 지난달 기준 13조 8985억원으로 전월 대비 1926억원 증가했으며, 대우에이텍(+6억원)이 뒤를 이었다. 코스닥에서는 에니젠이 55억원 증가해 시가총액 493억원으로 선두에 올랐고, 정다운(+28억원), DH오트웨어(+21억원) 등의 순이었다.
한전은 코스피에서 전월보다 1.4% 오른 13조 8985억원으로 시가총액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코스닥에서는 에니젠이 12.5%의 상승세를 보였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러니스 워크' 행사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러니스의 계절' 봄을 맞아 다양한 러닝 아이템을 추천하는 '러니스 워크' 행사를 오는 13일까지 진행한다. 행사 기간 나이키 매장에서는 러닝화 2종, 러닝탑 1종, 러닝팬츠 1종을, 스के처스 매장에서 러닝화 베스트 2종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볼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남도장터 지역 소상공인 위한 로컬상품관 마련

지역상권 활성화 파격 할인 행사

전남 대표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가 쇼핑물 내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용관인 '로컬상품관'을 마련, 파격적 할인 행사를 지원하면서 고객 확보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남도장터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2025년 로

컬상품관 입점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남도장터는 3억 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 쇼핑물 내 별도의 '로컬상품관'을 구성한 뒤 전남 농·특산물과 체험상품 등을 판매하는 소상공인 110개사를 선정해 입점시킬 계획이다.
특히 전용관 입점 업체들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 행사를 지원해 상품 판매 촉진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남도장터는 또 올해 전남에서 열리는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와 연계, 구매상담회, 라이브커머스 판매 등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경호 재단법인 남도장터 대표이사는 "남도장터의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법인 남도장터는 지난 1월 지자체물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 수산대전'에 선정, 1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민 소득 증대에 역할을 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금융당국 미 관세충격에 “100조원 시장안정프로그램 집행”

“관세 영향 기업 적시 자금지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5대 금융지주와 정책금융기관들을 소집하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필요한 자금공급과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증권금융 사장 등 관계기관을 소집해 금융상황점검

회의를 하고 이같이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금융당국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 공급 등 필요한 조치가 언제든 취해질 수 있도록 약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준비와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외 경제·산업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다음 정부 출범까지 남은 2개월간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미국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은 물론, 협력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현장에서 거래기업들의 상황과 영향을 밀착 점검하고 필요한 자금공급과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 공급 등 필요한 조치가 언제든 취해질 수 있도록 약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준비와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기존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안정프로그램은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와 PF·건설 관련 60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연합뉴스



3월 고용보험 가입 증가폭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지급자·지급액 4년 만에 최다

올 3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 폭이 3월 기준으로 통계 집계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급여 지급자와 지급액은 4년 만에 최다 기록을 경신하며, 얼어붙은 고용 시장의 현실을 실감케 했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3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만4000명(1.0%) 증가하는 데 그쳤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집계를 1997년 시작해 1998년부터 증감률을 계산하고 있는데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했으나 건설업은 감소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4만6000명으로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며, 섬유, 금속가공, 기계장비 등은 감소했다.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1069만명으로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전문과학, 숙박 음식 등 위주로 증가했으나, 도소매, 정보통신은 지속해 감소했다. 건

설업 가입자 수는 75만4000명으로,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20개월 연속 줄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 가입자는 853만2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만3000명, 여성 가입자는 690만3000명으로 13만1000명 각각 증가했다.
30대·50대·60세 이상은 각각 6만7000명, 5만6000명, 18만4000명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와 40대는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각각 10만4000명, 4만9000명 감소했다.
29세 이하와 40대는 각각 33개월, 19개월 연속 줄었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으로 전체 업종 외국인 가입자는 1년 전보다 2만4000명 증가한 25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고용을 줄여든 반면 3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13만7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000명(4.6%)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69만3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만8000명(5.9%)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액도 1조510억원으로 815억원(8.4%)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자와 지급액 모두 2021년 3월 이후 4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중기부 지역상권 지원사업 추진절차

2025. 4. 7	2025. 4. 7~5. 2	2025. 5월 초	2025. 5월 중
공모지침 배포	공모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문접수)	서류심사	현장·발표 평가
			↓
2025. 6월 중 사업수행	2025. 6월 초 착수 전 사전컨설팅	2025. 5월 말 최종 대상지 발표	2025. 5월 말 심의조정위

중기부, 지역상권 활력 프로젝트 가동

올해 지자체·주관기관 2곳 선정

2년간 한 곳당 최대 20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는 “지역 상권 활력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초지자체·주관기관(상권 기획자)으로 구상된 컨소시엄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인구 감소·관심 지역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기획한 상권 발전 전략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하는 정책이다. 인구 감소 지역과 쇠퇴 상권에 개별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을 관계 부처가 함께 선정하고 연계 지원해 지역 상권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중기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는 업무 협의를 통해 연계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각 기관의 역할과 사업별 지원 방안을 협의·분담했다.
중기부는 사업 공모 절차와 운영을 총괄하며 민간에서 기획한 상권 발전 전략 실행을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사업 계획의 사전 컨설팅, 사업비 관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모에 선정된 상권이 포함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의 선정 우대부터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용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객 유치에 위해 지역의 소품 편의 서비스(외국인 결제 시스템 등)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해나 기자 khn@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28.20	(-137.22)
↓ 코스닥	651.30	(-36.09)
↓ 금리 (국고채 39년)	2.405	(-0.056)
↑ 환율 (USD) <오후 5시 10분 기준>	1464.20	(+30.10)